



파주

한반도 평화수도

‘분열과 대립’의 낡은 과거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
번영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입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마장호수 ‘흔들다리’ 방문객 200만명 넘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의 마장호수를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찾은 사람이 지난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는 길이 220m, 폭 1.5m다. 보도용 현수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이를 자랑한다. 2016년 9월 조성된 감악산 출렁다리(150m)보다 70m가량 길다.

파주시는 2016년 8월부터 마장호수 일원에 총 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완성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도시선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흔들다리와 전망대, 관리동은 물론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과 산책로를 설치했다.

특히 흔들다리는 초속 30m의 강풍과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성인 70kg 기준으로 1천278명이 동시에 견딜 수 있다.

마장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흔들다리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파주시 광탄면 음식점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파주관광전자지도’를 검색하면 할인음식점의 위치와 메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기도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지난 10월 16일에는 마장호수 관광객 200만 명 방문을 기념하는 ‘노을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파주시립예술단의 가을노래 합창과 여성 4인조 밀키웨이, 지역 가수 김 설이 무대에 올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마장호수 흔들다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며 “앞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올곡 이이 유적



판문점



GTX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임진각



마장호수



운정호수공원



파주출판도시



LG디스플레이